

경계의 언어화와 소통

최진숙* · 안준희**

본 특집의 논문들은 모두 한국 사회의 다양한 언어 사용 현상에 대한 언어인류학적 연구 결과이다. 이 논문들은 이론, 연구 주제 및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현재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들로 국내 언어인류학 연구가 한층 더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이라면 특집에 실린 네 편의 논문들이 모두 언어인류학이 제공할 수 있는 분석적 명료성과 이론적 확장 가능성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점이다. 본 서문에서는 네 편의 논문들을 포괄하는 핵심 주제를 ‘경계의 언어화와 소통’이라고 규정하여, 언어인류학이 어떻게 기호의 존재론에서 인간의 인식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시적 상호작용에서 거시적 사회 구조까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언어와 사고 간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 가설 이후로 언어와 사고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민속분류법 고찰을 통해 주위 세계에 대한 사회문화적 지식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해왔다. 가령, 국내 언어인류학 연구에서는

*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초과정부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왕한석(1996b), 조숙정(2009), 안준희(2010)가 민족과학적 접근으로 자연 환경, 음식, 사회세계 등에 대한 민속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이들 연구가 전통적 접근으로 사물, 환경이 언어화된 ‘결과’로서의 지식체계를 기술, 분석하여 언어와 사고 간 관계에 대한 언어인류학적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면, 최근 언어와 사고 간 관계는 소위 민속 지식의 생성 ‘과정’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강윤희 2015, 2016).

본 특집의 고경난, 이혜민의 논문도 마찬가지로 브랜드의 창출 과정 및 의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언어적 재편성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언어와 사고 간의 관계를 지식과 의미 생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논문은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언어적 표현이 사고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고를 창출함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경난의 논문은 색의 언어화가 어떻게 브랜드로 정착하게 되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는 ‘인용성(citability)’이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특히 ‘소녀다움’을 정의하는 성격화(characterization)가 그 인용성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핑크색으로 대변되는 소녀다움은 다시 다양한 수식어들이 추가됨으로써 핑크색이 구체적인 소녀의 성격, 즉 발랄함, 귀여움 등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소녀들에 의하여 인용되어 회자됨으로써 소녀됨의 도상화(iconicization)에 기여한다. 색이 표상하는 것이 소녀다움이라면, 다시 특정 색명은 소녀다움을 고착화시키는 도상성(iconicity)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고경난의 논문이 ‘색’이라는 감각질의 언어화를 다루었다면, 이혜민의 논문은 아픔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감각이 언어화를 통하여 객관적인 감각질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아픔의 언어화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로는 감각이 언어 형태로 번역되는 작업, 그리고 둘째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언어 형태로 번역된 아픔이 다시 새롭게 해석되는 작업을 기술하였다. 즉, 아픔이라는 감각은 일차적으로 환자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의사의 언어로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계가 명확한 감각질로

변화하는 것이다.

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질병의 진단을 위해 그 근거로 삼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도 다수 존재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혈압, 맥박, 열 등 여타 측정 지표를 통하여 표현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 수치화되어 측정된다 해도, 푸코가 논의했듯이 근대 의학에서 질병에 대한 관찰을 기록화, 수치화하는 현상도 마찬가지로 ‘수’라는 또 다른 언어적 도구를 빌어 일련의 경계를 만드는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우리의 자연세계와 이에 대한 감각은 언어이든 무엇이든 간에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재생산하는 과정에 의하며 규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로의 번역이 ‘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인용 및 수정 등을 통하여 재맥락화되는 과정은 다시 경계를 고착화시키는 작업이다. 고경난과 이혜민의 논문은 의미의 분류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언어인류학적 연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분류의 생성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경계와 소통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집에 실린 조강제와 임유경의 논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강제와 임유경의 논문은 영어와 한국어, 성소수자, 한국인 등의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경계에 주목하여,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때로는 경계가 생산·재생산되고, 동시에 저항과 유대감이 소통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조강제와 임유경은 특히 제도화된 언어 환경 및 이중 언어가 사용되는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맥락 내의 언어 사용을 기술, 분석하고 있다. 우선 두 논문은 교회와 학교라는 제도화된 환경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 임유경의 논문은 성소수자 교회의 성적 농담을 분석하여 종교적 공간 내에서 사용되는 성적 농담이라는 장르를 성소수자의 정체성,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기독교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배적 담론 등과 관련지어 논의하고 있다. 논문은 특히 성적 농담이 맥락화 단서, 메타 화용론적 프레임을 둘러싼 역학, 퀴어 문화와 관련된 전제들을 공유하였을 때 농담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성적 농담을 둘러싼 검열이 일상에서 다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성적 농담이 해당

언어 공동체에서 젠더 및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인식과 가치를 생산·재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강제는 영어가 주 매개어인 국제초등학교 교실에서 콩글리시가 사용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실의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콩글리시가 지닌 언어 구조적 특성, 학생들의 전략적 활용 양상 및 언어 태도를 살펴보고 있다. 논문은 표준 영어 사용이 올바른 언어 규범으로 여겨지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콩글리시가 친밀감과 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변이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실천적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태도와 별개로 학생들이 담론적 차원에서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콩글리시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함을 보여주면서 콩글리시에 대한 양가적 언어 태도를 논의하고 있다.

두 논문은 제도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연구에서 종종 다루어지는 교회와 학교라는 언어공동체를 다룸으로써 전통적인 언어인류학의 제도 언어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동시에 이 논문들은 농담과 말놀이라는 언어 장르에 주목함으로써, 기존 제도 언어 연구에서 흔히 다루어지지 않는 언어 장르와 그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언어인류학의 제도 언어 연구들은 주로 해당 제도적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여겨지는 언어들, 예를 들어, 병원이거나 법정에서 사용되는 의료적, 법적 언어 사용에 주목하여, 이 언어들 지니는 상황변이어로서의 특성과 기능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달리 본 특집의 두 논문은 교회에서의 성적 농담과 교실에서의 콩글리시를 사용한 말놀이라는 비전형적인 말 행위에 주목하여, 성소수자 기독교인들과 국제초등학교 학생들이 두 가지 말 장르를 활용하여 어떻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확인하는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임유경은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성적농담을 통해 기독교계의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지배적 성 담론에 저항하며, 화자와 청자 사이의 동일시와 유대감을 상징하는 성적 농담의 실천 방식이 퀴어 커뮤니티라는 공동

체를 설정,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한 맥락에서 조강제 논문의 국제 초등학교 학생들 또한 콩글리시 말놀이를 통해 영어 사용 규범에 저항하고, 콩글리시로의 코드 전환을 통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두 논문은 제도적 언어 환경 내의 전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에 주로 주목하였던 기존 제도 언어 연구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한 기존 농담 및 말놀이 연구(왕한석 2009, 2010, 2012; 최진숙 2010; 변혜원 2011; 강나영 2015)를 확장시키고 있다.

두 논문은 제도화된 언어 환경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 사용 현상을 다룸으로써 전지구화를 배경으로 한 한국의 언어 환경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한국에서 영어가 지나는 이데올로기적, 실천적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매개로 한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언어인류학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Park 2009; Lo and Kim 2012; 최진숙 2014; Choi, Tatar, and Kim 2014).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영어가 포용, 변형된 형태로서의 콩글리시에 대한 조강제의 연구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콩글리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연구자의 직관적 판단에 근거해 수집한 단편적인 사례들이나 인터뷰를 통한 언어 태도를 다룬 것과 달리, 조강제의 논문은 실제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의 말 사례 분석을 통해 콩글리시의 언어적, 형식적 측면과 사회적, 맥락적 요인을 살펴본 콩글리시에 대한 본격적인 언어인류학적 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임유경의 논문 또한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사용되는 이중 언어 환경이 교회라는 종교적 공간에서 성적 농담이 실천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논문은 이중 언어 환경 내의 언어 장벽이 성적 농담이 지나는 ‘섹슈얼함’ 혹은 ‘날카로움’을 무더지게 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농담을 통한 종교적 공간의 퀴어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논문 모두 구체적인 말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기술과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영어 사용이라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언어인류학의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요컨대 본 특집의 논문들은 모두 경계의 생성, 그리고 경계의 확장에 언어

라는 기호가 필연적으로 동원되어 의미가 재생산되고 소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민족과학, 인지인류학적 연구들의 주된 관심이 민속 분류법을 통한 민속 지식 체계에 대한 탐구였다면, 본 특집에 포함된 연구들을 포함한 최근 언어와 사고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지식은 어떻게 생성되고 재생산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천착함을 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언어유희에 대한 연구가 언어 구조 및 사용 양식의 유형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특집에 실린 이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은 어떻게 농담과 같은 언어유희가 언어와 언어 사용자 간의 경계를 언어화하고, 가치를 재생산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본 특집의 논문들은 이론, 연구 주제,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함으로써 기존 언어인류학적 연구들을 다양화하고, 기존 연구들이 다져놓은 분석 방법론 및 이론적 연계 속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언어인류학 연구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 네 편의 논문들이 언어인류학 뿐만 아니라, 다른 하위 분야 인류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나영

- 2015 “어린이 ‘동음이의어 말놀이’(pun)의 구조 및 내용적 특성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23(1): 1-30.

강윤희

- 2015 “‘커피 배우기’: 언어, 향미, 그리고 감식안의 습득과정,” 『비교문화연구』 21(1): 5-41.
 2016 “언어와 감각: 커피 향미 표현에 대한 민족지적 사례 연구,” 『사회언어학』 24(1): 1-36.

변혜원

- 2011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중학생 언어행동의 주요 특성과 변이,”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안준희

- 2010 “‘노숙자’의 정체성과 적응 전략: 인지인류학적 접근,” 왕한석 편,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서울: 교문사, pp. 197-230.

왕한석

- 1996a “언어·사회·문화: 언어 인류학의 주요 조류,” 『사회언어학』 4(1): 3-50.
1996b “제주 사회에서의 조 및 관련 명칭에 대한 일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9(2): 341-360.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 1: 서편』, 서울: 교문사.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 전라남북도 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 경상남북도 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조숙정

- 2007 “김치와 문화적 지식: 전라도 김치의 명칭과 구분법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한국문화인류학』 40(1): 83-127.
2014 “바다 생태환경의 민속구분법: 서해 어민의 문화적 지식에 관한 인지인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바람에 관한 서해 어민의 민속지식,” 『비교문화연구』 21(2): 291-328.

최진숙

- 2010 “‘농담’과 ‘결말’의 구조와 사용양식,” 왕한석 편, 『한국어·한국문화·한국사회』, 서울: 교문사, pp. 421-468.
2014 “영어 공간에서 한국어 사용하기,” 『언어사실과 관점』 33: 273-294.

Choi, Jinsook, Bradley Tatar, and Jeongyeon Kim

- 2014 “Can EFL Students Communicate in EMI Classes?: A Case of Liberal Arts Class at an Engineering University in Korea,”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43(4): 369-385.

Lo, Adrienne and Jenna Kim

- 2012 “Linguistic Competency and Citizenship: Contrasting Portraits of Multilingualism in the South Korean Popular Media,” *Journal of Sociolinguistics* 16(2): 255-276.

Park, Joseph Sung-Yul

- 2009 *Local Construction of Global Language: Ideologies of English in South Korea*, Boston, MA: De Gruyter Mouton.

